도입

회사는 작은 조직을 경영하는 간에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물며 국가이겠는가? 국가를 경영하는 핵심 가운데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물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의 능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일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여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 장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군자의 행실, 소인의 간사함을 분별하는 것, 군자와 소인에 대한 통론, 등용과 퇴출의 편의, 현명한 이를 찾는 방법, 소인을 멀리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 상 모든 것을 항목별로 다룰 수 없고, 모두 통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본문

[율곡의 풀이]

공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어진 이를 기용하지 않고 정치를 잘하는 이는 아직 있지 않았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야 정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직 책은 오직 어진 이를 알아 잘 맡기는 것을 선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을 먼저 놓고 장 내에서 특별히 상세히 의논하였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오직[惟] 인仁)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그 사

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는 연유를 살펴보고 그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율곡의 풀이]

행위가 비록 착할지라도 만약 명예를 좋아하고 벼슬을 좋아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그 하는 일의 동기가 착하지 못하다.

[논에]

뭇사람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뭇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주석〉 맹자가 말하였다. "주위에서 모두 어질다고 해도 아직 수용해선 안 되며, 모든 대부들이 다어질다고 해도 아직 수용해선 안 된다. 나라 사람들이 다어질다고 한 뒤에 살펴서 그어진 것을 본 뒤에 기용해야 한다. 주위에서 다옳지 못하다 해도 듣지 말고, 모든 대부들이 다옳지 못하다 해도 듣지말 것이며, 나라 사람들이 다옳지 못하다고 한 뒤에야 이것을 살펴서 그 옳지 못한 것을 본 뒤에 버릴 것이다."

[주역]

군자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율곡의 풀이]

군자는 인륜의 행위에 있어서는 세속과 대부분 같지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부모를 도리로서 깨닫게 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 효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속인과 다르고, 임금을 존경하는 것은 같지만 임금을 도리에 맞도록 인도하다가 합하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속인과 다르며, 처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서로 손님같이 존경하여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속인과 다르고, 형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지만 화락한 마음으로 서로 힘써서 학행을 연마하는 것이 속인과 다르며, 친구끼리 사귀어 노는 것은 같지만 오래도록 존경하고 서로 보살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속인과 다르다.

[논에]

공자가 말하였다. "훌륭한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옳지 못하면 그만든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옳지 못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가는 것을 말한다. 도로써 임금을 섬기는 이는 임금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옳지 못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선비는 곤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고, 출세해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을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근심한다. 정말 잃을까 근심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주석〉주자가 말하였다. "작게는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아 주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것까지 다 잃을까 근심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율곡의 풀이]

탐욕스럽고 더러우며 아첨하는 것은 소인의 한결같은 태도로 어리석고 어두운 임금이 아니라면 이 것을 분변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오직 옳은듯하지만 그른 자에 대해서는 비록 밝은 왕이라도 분변하지 못할 때가 있다. 군자는 낯빛을 바르게 하여 곧은 말을 하는데, 소인 중에 외형은 엄격하게 하고 들추어내는 것을 정직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그와 비슷하다. 또 군자는 행실이 완전하여 결점이 없는데, 소인 중에 삼가고 조심하여 비난하려 해도 비난할 거리가 없는 자가 그와 비슷하다. 성현이 깊이 경계함이 당연하다.

[논에]

군자는 의(義)에서 깨닫고[喩], 소인은 이(利)에서 깨닫는다.

[논어]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남과 같아지려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군자는 두루 조화를 이루고 편당 짓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 짓고 두루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율곡의 풀이]

신하의 악(惡)은 사사로이 당을 짓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임금이 몹시 미워하는 것도 붕당(朋黨)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는 반드시 이것을 효시로 삼으니, 그저임금이 이것을 살피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진실로 이것을 살핀다면 공(公)과 사(私), 충(忠)과 아첨을 분변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른바 살핀다는 것은 다만 그 마음을 살피는 것뿐이니, 그 마음이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 몸을 영화롭게 하고 권세를 굳히는 데 있는가 하는 것이다.

[논어]

애공(哀公)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하겠는가?" 공자가 대답하였다. "곧은 이를 들어 쓰고 모든 굽은 이들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하고, 굽은 이를 들어 쓰고 곧은 이들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논에]

중궁(仲弓)이 어진 이를 기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어떻게 해야 어진 이를 알아내 기용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아는 이를 기용한다면 모르는 이를 남들이 그냥 두겠는가?"

[논에]

정공(定公)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자가 대답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데 예로써 하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도 충(忠)으로써 할 것입니다."

해설

앞의 본문을 보면 흔히 오해하고 있듯이 유학이 전근대적인 사상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비록 옛날에는 백성들의 위상이나 권리가 비록 오늘날처럼 높지 않지만,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하는 것은 오늘날에 시사되는 바가 많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이렇게 인재가 없는 것인지 인재를 고를 줄 모르는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정작 임용되어서도 최고 권력

자에게 '예스'만 할 줄 알았지,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각료들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 더구나 뜻이 맞지 않아 자리를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난 각료는 눈 닦고 보아도 안 보인다. 본문의 기준대로 볼 경우 다 소인이고 아첨꾼에 불과하다. 과거 군주제의 모든 사상과 제도가 다 나쁜 것이 아니듯이 현대 민주정치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보았다.

1. 총리나 장관 임명 때 청문회라는 것이 열리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청문회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다. 위장전입, 불법투기,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총리나 장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총리나 장관으로서의 업무처리 능력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영을 위한 전체적인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사람의 자질은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살피고 검증해야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자.

2. 공자는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으며, 소인은 남과 같아지려하고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남과 조화를 이룸과 남과 같아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삶과 남과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남과 똑같은 삶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남과 같아진다는 것은 나를 대신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은 아닐까?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과연 나의 존재감은 어떻게 될까?

3. 직언(直言)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다'의 뜻이다. 임금과 같이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이거나, 나보다 지위나 계급이 높은 사람 또 부모가 그릇된 일을 할 때 과연 자신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을까? 공자의 말은 그럴 경우 임금이나 윗사람을 따르지 말고 자기의 뜻을 실행하라는 뜻이다. 여러분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4.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얼굴을 잘 꾸미는 사람을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중에 사이비가 많다고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언영색을 일삼는 사이비들이 많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말끔한 외모에 유창한 말솜씨로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는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 대놓고 소인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이런 사이비 소인배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지위를 얻고, 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하는 짓거리가 없다. 그런데도이런 소인배가 가까이 있으면 구별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에게 농락당하기 십상이라고 한다.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자와 사이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적인 이익이나 공적인 정의의 입장에서 말해 보세요.

소행 수선 바우호명호작지념 제심 즉소유 불선의 所行이 雖善이라도 若有好名好爵之念이 在心이면 則所由가 不善矣니라 (『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所: ~하는 것/行: 행하다/雖: 비록/若: 만일/有: 갖고 있다/好: 좋아하다/名: 이름, 명예/爵: 벼슬/之: ~의/念:

생각/則: 곧/由: 말미암다/不: 아니하다/善: 착하다, 선하다/矣: 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

*所+동사는 명사형을 만드는 숙어로 所行은 행동한 것 곧 행위, 所由는 말미암은 것 곧 동기(動機)를 뜻함

*雖: 비록 ~하더라도

*若~則~: 가정법을 만드는 숙어로 만약~하면 ~하다의 뜻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소행(所行): 이미 하여놓은 일이나 짓 또는 행위

*호명(好名): 이름나기 곧 명예를 좋아함

해석

행위가 비록 착할지라도 만약 명예를 좋아하고 벼슬을 좋아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그 하는 일의 동기가 착하지 못하다.

궁불실의고 사득기언 탈불리도고 민불실망언 窮不失義故로 士得己焉하고 達不離道故로 民不失望焉이니라(『맹자』).

한자 풀이와 해설

士:선비/窮:가난하다/不:아니하다/失:잃다/義:옳다/達:다다르다,영달하다/離:떠나가다,떨어지다/道:

길/故:연고, 까닭/得:얻다/己:자기/焉:어조사/民:백성/望:바라다

*故:~때문에, ~하므로의 뜻으로 쓰였다.

*뒤 문장의 주어도 士인데, 생략되었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궁불실의(窮不失義):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음

*달불리도(達不離道): 영달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음

해석

선비는 곤궁해도 의(義)를 잃지 않고, 출세해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을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다.